민주당 김양수 장성군수 후보가 27일 오후 동화면의 한 농가에서 주민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장성=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무소속 이청 장성군수 후보가 27일 오후 장성군 북하면 거리에서 군민들에게 한 표를 호소하며 악수하고 있다.
/장성=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장터 누비며 표심 호소 '잰걸음'

■민주당 김양수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매일 빠듯한 일정
"4년동안 엉망 된 지방자치 되살리겠다" 다짐
이낙연 의원·박준영 도지사 후보도 지원 유세

"엄니, 뭐 사셨어. 군수는 꼭 2번, 김양수 사부러" "많이 파시고 군수는 김양수 사시요. 싸게 해드릴랑께."

27일 오전 10시30분께 장성군 삼계면 사창장터. 민주당 김양수 장성군수 후보가 5일마다 열리는 이곳 장터 곳곳을 누비며 유권자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다. 김 후보는 이미 여러 번 이 장터를 다녀갔는지 상당수가 얼굴을 아는 사이였다.

"아버님 나오셨소"라고 김 후보가 인사를 건네자 60대의 한 군민은 "아까 봤잖아"라고 답한다. 또 "엄니 알제, 2번"하고 지지를 부탁하자 70대의 한 할머니는 "우리는 박정희 때부터 민주당이요. 우리 영감이 야당 한다고 논 몇 개 팔았는지 몰라"라고 푸념을 하면서도 지지를 약속한다.

우연히 무소속 임동섭 군의원 후보를 만났다. 임 후보가 "측근들이 예산을 나눠먹기 해 집중과 선택이 안 되고 있다"며 현 군수를 비판한 뒤 "군청 공무원과 농협 직원을 만나보면 대부분 '김양수'라고 한다"고 김 후보에게 덕담을 건넨다.

김 후보는 1시간 가까이 장터와 주변 상가를 돌며 "군수는 '양수'. 외우기도 쉬워"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에 "아이고 군수님 오셨네"라고 반기는 군민도, 조용히 불러 손을 잡고 선거에 관련된 조언을 해주는 유권자도 있었다. 장터 인근 유세차 앞. 20여명의 율동팀이 대중가요를 개사한 로고송에 맞춰 춤을 추며 흥을 돋우고 있었다.

이어 김 후보가 지지자들의 환호와 갈채 속에 등장, 유세를 시작했다. 그는 "운동경기는 가장 재미있는 게임이 역전승"이라며 "저는 이번 선거에서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김대중 선생이 단식을 하며 부활시킨 지방자치가 지난 4년 이곳 장성에서는 엉망이 됐다" "미꾸라지 한두 마리가 온 냇물을 흐린다" "부부군수, 가족군수 시대를 겪었는데 군정이 어떻게 되었느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고 강조하며 현 군수의 군정을 비판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김 후보는 또 "저를 뽑아주면 가족이 못 나서게 하겠다. 재판정에서 눈물을 흘리는 군수가 아니라 군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군수가 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날 유세에는 같은 당 소속의 장성을 지역구로 둔 이낙연 의원과 박준영 전남지사 후보가 나서서 김 후보를 지원하기도 했다.

김 후보가 군수선거를 본격 준비한 것은 지난 3월 예비후보 등록 이후. 하지만, 지난 2007년 12월 대선과 함께 치러진 재보궐선거 낙선 이후에도 장성에서 살며 군민과 접촉해 왔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쳤다. 더욱이 민주당 내 경선 없이 후보로 확정돼 상처도 입지 않았다. 유리한 상황에서 선거를 준비해 온 것이다.

그럼에도, 김 후보는 매일 빠듯한 일정을 보내고 있다. 매일 새벽 4시 기상해 장성읍 희망교회에서 새벽기도를 하며 하루 일정을 시작하고 밤 10~11시 사이에 선거사무소에 들른 후 귀가, 자정께 잠이 드는 생활을 하고 있다. 조식은 집에서 하지만 오찬과 만찬은 일정이 겹치면서 10여 차례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한다.

이날은 오전 8시 제주관광에 나서는 읍 주민 40여명에게 인사를 한 뒤 9시에는 장성군청을 방문, 후배 공직자들을 격려했으며 10시께는 삼계면 효사랑병원에 들러 직원과 환자들을 만났다. 또 유세 후에는 박준영 전남지사 후보와 국밥집에서 오찬을 한 뒤 북이면 남성노인당을 방문하고 이후 5시간여를 동화면 일원의 논밭을 돌며 군민들을 접촉했다. 이어 생활체육협의회 이사회의, 장성군 카센터업주모임 등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새벽 6시 상무대 찾아 '軍心잡기'

■무소속 이 청

'분 단위' 스케줄 소화에 몸무게 5㎏ 줄어
사창장터서 '삼계면 일대 개발' 공약 제시
근로사업장 방문 '고구마 심기' 한표 호소

무소속 이청 장성군수 후보는 27일 새벽 5시30분 장성읍 자신의 집을 나섰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간 이후 한 번도 이 시간을 넘긴 적이 없다. 다만, 선거 막바지가 되면서 차분했던 발걸음은 다소 빨라졌다.

이 후보는 장성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 하나다. 여론조사결과, 간발의 차이로 군수 후보자 간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지역인 탓에 선거를 5일 앞두고 '분 단위'로 조정되는 스케줄을 소화하느라 몸무게가 5㎏이나 빠졌다.

일정도 예측불허다. 매일 밤 11시께 지역 행사와 방문 지역을 취합, 15개~20개 안팎의 일정을 확정한 뒤에도 현장에서 그때그때 끼어드는 일정 때문에 최종 방문지가 바뀔 때가 많다.

이 후보 한 측근은 "일정을 짠 뒤에도 후보를 모시려 하는 지역이 있어 방문지가 바뀌곤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이날 첫 유세 장소는 장성군 삼서면 상무대 정문. 출근 시간이 빠른 군인·군무원들과의 만남을 위해 새벽 6시부터 찾았다. 1시간 넘게 손을 흔들고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거나 뛰어다니며 유권자들과 악수를 하다 다음 장소로 서둘러 옮겼다.

8시 10분 두 번째 출근길 유세를 위해 찾은 곳은 제조업체가 몰려 있는 황룡면 회사촌. 대양판지, 한맥케미칼, 영우실업 등 15개 회사를 부지런히 돌면서 출근하는 600여명의 근로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청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며 눈도장을 찍었다. 이후보는 두 손으로 악수하는 경우가 많다. 정성스럽게 보이기도 하지만 손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 여성인데다, 워낙 많은 사람과 악수를 하다 보니 상대방의 악력에 손을 다칠 수 있다는 것. 노인인구가 많아 유권자들을 만날 때도 대부분 '어머님, 아버님'으로 부른다.

출근길 유세가 끝난 뒤 이 후보는 이동중인 차 안에서 김밥으로 아침을 때우고 동화게이트볼장의 자활 근로사업장을 방문해 지역민들과 고구마 심기를 함께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이들에게 맞춤형 농업정책과 경로당 찜질방 개설 등을 약속했다.

이어 삼계면 사창시장 앞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오전 9시 40분으로 예정된 시장 앞 유세를 위해서다. 5일 장이 열리는 만큼 선거 막바지 지역민들과 접촉하는 좋은 기회. 하지만, 예정보다 20분 늦게 연단에 올랐다. 이동중 차를 세우고 논밭에서 일하는 지역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늦어졌다.

이미 다른 후보 측과 연설 시간을 정해놓은 터라 40분의 연설을 마치고 단상을 내려온 뒤 속상한 표정을 내비쳤다. 유세장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비판도 빠트리지 않았고 '중단 없는 장성 재창조','삼계면 일대 개발'을 제시했지만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 오랜 선거운동으로 인해 목소리는 허스키함이 배어있었다. 그는 "이 중요한 순간에 주민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라도 연설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에 올라타 이동하려는 이 후보에게 기자가 "유세 장소로 이동중 간단한 동행 인터뷰를 하자"고 요청했지만,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인터뷰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답이 돌아왔다. 이어 "다른 유세 일정이 있어서…"라고 했다. 지난 2월 광주일보 여론조사에서 48.7%로 1위로 내달렸던 지지율이 지난 24일 32.8%로 급락했고 그나마 다른 후보에게 뒤졌다는 점이 신경쓰인 듯했다.

이 후보는 15분 거리에 있는 장성읍 보건의료원으로 옮겨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교육'과 장애인재활센터를 찾았고 백양사휴게소에서 열린 맛자랑대회를 비롯, 충혼탑 정화활동, 농공단지 방문 및 장성 유치기업 공장 준공식 등 행사 일정을 부지런히 소화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